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24일 월요일 음 5월 22일 (14물)

기상정보

맑음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0℃, 낮 최고기온은 24~25℃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0m로 일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 for the next 5 days.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s for Jeju.

Table with 7-day weather outlook for Jeju.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including food safety and UV index.

월드뉴스

중국 쓰촨성 이빈서 또 규모 5.4 지진

규모 6.0 강진 이후 여진 계속



22일 오후 10시 29분(현지시간) 중국 쓰촨(四川)성 이빈(宜賓)시 공(珙)현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중국지진대방이 밝혔다.

지난 18일 쓰촨성 이빈시에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했다. 아직 보고된 인명 피해는 없으며 전력과 통신은 정상적이라고 중국중앙방송(CCTV)은 보도했다. 이빈시에서 창닝현에서 지난 17일 일어난 지진으로 13명이 숨지고 220명이 다쳤다. 아울러 8만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다. 주택 4만6000채가 크게 파손됐으며 다소 파손된 주택은 11만채에 달했다. 이빈시는 중국에서는 고급 백주 우량에(五粮液)의 생산지로 유명하다.

이빈시에서는 닷새 전인 지난 17일 밤에도 규모 6.0의 강한 지진이 일어난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날 지진은 여진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았다. 진원의 깊이는 10km이며 정확한 지진 발생 지점은 북위 28.43°, 동경 104.77°다. 지진이 나자 많은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서둘러 피신했다. 이빈시에서 200km 넘게 떨어진 청두(成都)와 충칭(重慶) 등지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고 현지 주민들은 전했다. 이보다 약 2시간 전인 오후 8시 30분에도 이빈시 공현에서 규모 3.6

한리일보 Jeju's representative newspaper information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

백록담



문미숙 서귀포지사장·제2사회부장

서귀포시 지역에서 아파트와 숙박시설 분양을 둘러싼 잡음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어렵사리 마련한 주택을 분양받은 이들에게 머리피를 두르게 하고 거리로 내모는 이유는 곳곳에서 확인되는 '부실 시공'이나 관광숙박시설의 '수익 보장' 등 거짓·과장 광고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기 분양'이 주 원인이다.

동홍동에 지어진 150여세대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은 입주에 앞서 건축물 점검 결과 공용계단의 누수 등 곳곳이 부실시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인·허가 공무원 등 3명을

주택 분양사기 막을 소비자 구제방안을...

우수 침투조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날 서귀포시도 지하 침투조 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자를 주택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원에 귀를 막다 뒷북행정을 한다고 지적하는 예비입주자들은 문제의 건설사가 강원·대구 등 다른지역서 분양한 공동주택에서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 건설사를 위한 주택법과 사용검사제도 개정·개선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상태다. 서귀포시 지역 분양형호텔에서도 소송이 진행중이다. 확정수익을 받지 못한 투자자와 시행사, 위탁운영사간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 탓이다. 분양형호텔이 분양 당시 약속한 수익금 미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란게 소송 외엔 방법이 없다. 중문관광단지내에 분양한 관광숙박시설인 휴양랜드미니엄(이하 '휴양

랜드')을 둘러싼 논란도 점입가경이다. 수분양자들은 "주거용이나 위탁운영해 수익 배분이 가능하다고 해 분양받았는데 '중건건설사'가 사기질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한다. 관광진흥법과 제주도관광진흥조례에는 휴양랜드는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 또 논란의 중심에는 법상 맹점도 한몫을 한다. 문화관광체육부의 관광숙박업 업무편람에는 휴양랜드를 분양받은 공유자·회원의 객실을 이용한 수익사업은 법적으로 절대 가능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정작 관광진흥법에는 휴양랜드의 위탁수익형 분양금지조항과 명시 규정이 없다. 몇 년 전 휴양랜드의 수익형 분양이 법 위반인지를 묻는 제주도 질의에 문광부는 '휴양랜드의 수익형 분양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렸다. 그러나 몇 달 후 '수익형 부동산 형태'의 휴양랜드 운영 금지조항 및 명시 규정이 없으니 관할 등록관청에서 면

밀 검토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 부처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휴양랜드의 위탁수익형 운영과 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시대지만 분양시장에서 소비자는 분양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왕'의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인간 생활의 기본 욕구의 하나인 '집'은 대한민국에선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사걱정 없이 가족과 단란한 생활을 기대하며 길게는 십 수년간 허리를 졸라매고도 대출을 겨야 구입 가능한 게 현실이어서다. 건축물 분양사업자의 중대한 거짓·과장 광고나 심각한 부실시공이 증빙되면 계약해지 등 소비자 구제방안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소비자의 이해·충동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의 사용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부처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열린마당

가축분뇨 냄새, 과감한 인식변화 필요



박동현 제주시 환경지도과

시나브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 시기가 되면 음식물쓰레기, 하수도, 축산, 해양 쓰레기 분야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생단체에서도 긴장하고 매우 분주해진다. 거의 대부분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도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 과거, 가축분뇨 냄새는 하절기에 절정에 달해 축산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악취가 끊임

없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매해마다 그럭저럭 지내 왔던 게 현실이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주요 소득원인 제주! 축산업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지만, 농가 주변 주민은 물론 1400만 여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축산악취로 인해 청정(淸淨)이 아닌 오염(汚染)이라는 이미지를 갖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선다. 지난해 도내 59개 농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악취방지시설 운영 등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말까지 총 232개소를 대상으로 악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및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협력해 축산농가에 대해 악취저감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처음으로 7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더 많은 농가에서 이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절실하다. 지난 과거 축산악취에 대해 '그러려니'에 대한 '인심(人心)'은 버리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냄새에 대한 과감한 인식변화를 기대해 본다.

나눔과 모음 '용담2동 행복 나눔 가게'



문정희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우리 주위에는 몇 년째 사용하지 않고 곁에 오래 남았으면 하는 물건들이 많다.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나중에 쓸 일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 등으로 물건을 쌓아놓게 된다. 그 중에는 상표도 떼지 않은 세상 품을 비롯한 치수가 맞지 않는 옷과 신발, 아이가 자라면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싫증난 가방, 식기 세트 등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물건들은 기부할 장소나 절차 등 번거로움 때문에 집안 한곳에 두게 된다. 물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서로의 역할이 있고 필요로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만약에 자주 안쓰는 물건들이 있다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여 소중한 물건으로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어줘야 한다.

용담2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일부터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소장품이나 애장품 등을 꼭 필요한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용담2동 행복나눔 가게'를 주민센터 현관에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안쓰는 물건을 기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곳에는 책이나, 가방, 장난감,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건의 기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심하게 오염되거나 고장난 제품, 낡은 물건 등은 기부를 제한하고 있다. '행복 나눔 가게'를 통해 물건 재사용으로 환경을 실천하는 소비문화 확산과 기부자의 즐거움까지 더해진다. 나눔과 모음으로 착한 소비를 하게 되고 작은 기부를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필요한 물건을 일일이 구입하지 않고 빌리거나 나눠쓰는 공유경제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자원 재활용과 나눔으로 물건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행복 나눔 가게'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Advertisement for 'International Hearing Aid Fair' (국제보청기프라자) featuring a 36-month interest-free installment plan for 27,000 won.

Advertisement for 'All kinds of products' (모든품종) and 'Sukgongmyo' (서귀종묘) nursery, listing various plan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ighly effective' (고개속인) medicine for men, including a list of symptoms and contact details for a clinic.

Advertisement for Jeju City Government (제주시정) news, listing various public notices and events.